미래 사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인천중, 교사 월드카페 실시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10월 28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먼저 1부에서는 '학생생활중심 수업 방안 및 미래교육 디자인'을 주제로 월드카페(원탁토론)를 실시했으며 2부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석철진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1부에서 교사들은 ▲과거와 현재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생-교사-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2036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등을 주제로 모둠별로 10분간 다양한 구성원과 의견을 나눴다.

교사들은 토의를 통해 미래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배움이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도 계속적으로 배우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고민을 나누게 됐다. 그리고 2부에서 석철진 교수의 강연을 통해 미래 사회의 학교의 모습, 미래 사회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정보를 얻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와 교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홍근 교장은 "앞으로도 상인천중은 지속적으로 교사 교육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 사회가 원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고용노동부-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청년 취업지원 협약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미취업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함께 팔을 걷어 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1일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이 중복 또는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담-훈련-일경험-취업알선'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인천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계·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을 하고,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천시 일자리 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인천광역시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단계에 있는 인천지역 청년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 주관으로 청년층에게 수요조사를 실시 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한 것이다.

인천진산초, 부평구보건소와 합동 흡연예방캠페인

인천진산초등학교(교장 김혜숙)는 10월 20일 부평구보건소와 함께 흡연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스스로 금연을 다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4~6학년 전교어린이회 임원들이 아침 등굣길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선물과 홍보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들이 금연홍보용 캐릭터에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여 시각적인 흡연예방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김혜숙 학교장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흡연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흡연예방활동을 접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어린이는 "이렇게 즐거운 봉사는 처음이다. 임원활동 하는데 보람 있고 유익했던 봉사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담배는 절대로 피우지 않겠다"라며 흡연예방 다짐을 밝혔다.

진산초는 앞으로도 흡연예방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흡연예방의식 고취와 담배로부터 건강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꿈과 끼가 열정 만나 행복 만들다

구산중, 2016학년도 제17회 청솔제 개최

구산중학교(교장 유영옥)는 10월 28일 전교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축제인 '청솔제'를 개최했다.

'명품 구산인이여, 끼와 열정의 마당으로'라는 구호 아래 체험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이 어우러져 진행된 이번 축제는 그간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갈고 닦은 학생들의 솜씨와 재능을 맘껏 발휘하는 열정의 장이었다.

공연마당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 퓨전난타, 음악줄넘기, 댄스, 랩,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여 축제에 흥겨움을 더해 줬다. 공연 외에도 전시마당에서는 비누공예, 생활목공, 한지공예, 예쁜 손글씨, 만화 등의 동아리 활동 작품과 학습플래너, 포트폴리오 파일, 미술전, 시화전, 영어전, 과학전, 기술·가정전, 창의인성전 등 각 교과 및 부서별 활동 결과물들이 전시됐다. 체험마당에서는 과학체험부스, 영어체험부스, 도서관체험부스, 보건실체험부스, Wee Class 체험부스 등 테마 체험마당과 문자왔송, 참참참, 노 저어라, 절대 음감, 사랑이 싹트는 신문지, 나는 뿔닭 등 다양한 열린 체험마당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의 열정과 성숙한 질서의식이 빛난 유익하고도 즐거운 축제로 기억될 것이다.

안용섭 기자 ays@

"가족 사랑 마음 키워요"

인천용현초 '아름다운 풍경과 대화가 있는 여행' 프로그램

인천용현초등학교(교장 고경희)에서는 지난 10월 22일 학부모와 학생 52가족(169명)이 '아름다운 풍경과 대화가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부평생학습관의 지원으로 '인성교육과 가족사랑'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방침으로 운영됐다.

가족단위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강화도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을 관람 후 나들길을 산행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오후에는 점심식사 후 사서체험관의 동·식물을 관찰했고, 평화전망대에 도착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낸 뒤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사진을 찍는 행사로 마무리 됐다.

가족과 함께 강화도를 탐방하고 나들길을 산행을 함으로써 향토에와 조국에 및 체력을 키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됐다.

부모님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임했고, 부모님들은 나들이를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며 내내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학교행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 학생은 "아빠가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신 관계로 엄마랑 참여했는데 즐겁게 강화도를 여행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됐고 다음 기회에 아빠와 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고경희 교장은 "2016학년도 학부모참여 사업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풍경과 대화가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소중한 융현 가족 여행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제8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호근)에서는 10월 29일 오후 4시, 2층 대공연장(싸리재홀)에서 제8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연주회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가족 초청 및 일반시민들과 청소년들로 6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정기연주회 공연이 시작됐다.

이번 공연은 단원들이 그간 학업과 연습을 틈틈이 병행하며 쌓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연주곡들이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은 고난이도의 곡으로서 일반적인 청소년 교향악단에서는 연주되기 힘든 최고 수준의 작품임에도, 단원들은 1년 동안의 장기간 집중연습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 박지인 학생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연주에 임했으며, 현악기 특유의 섬세하고 화려한 음색을 살린 연주로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의 하모니로 담아내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합창단의 협연이 있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마음으로 느끼기에 더욱 충분한 추억의 장(場)이 되었다.